



8면

유진섭 정읍시장 "엄중한 시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달라"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음 8월 22일) 제263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7일 전주시 전라감영에서 열린 '찬란한 꽃, 천년의 열매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위용 드러내

'전라감영' 약 70년만에 복원... 추후 시민에 개방 104억원 들여 선화당·내아·관풍각 등 7개 건물 김승수 시장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심장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한국전쟁 때 폭탄으로 완전히 사라진 지 약 70년 만에 위풍당당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관련기사 16면>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위원장 이명우)는 7일 전라감영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이정린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장, 최기영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이명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찬란한 꽃, 천년의 열매 - 전라감영'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1884년 전라감영을 다녔던 미국대리공사 조지 클레이튼 포크 (George Clayton Faulk, 1856-1893)의 사진 속에 담겨진

승전문(국가무형문화재 21호)와 전라감사 교대식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복원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환영사, 축사, 희망보급 전달식, 현판 제막식 등이 이어졌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대행사로 전라감영을 지켜온 회화나무 씨앗과 전라감영 흙을 드론 3대에 매달아 동화농민혁명 발원지인 정읍, 고창과 6·25 전쟁 피해 지역인 남원, 전북의 새로운 미래인 새만금으로 날려 보내는 등 전주 정신을 전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전라감영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복원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현장부어를 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폭발사고로 완전히 사라졌고, 이듬해 전북도청사가 지어졌다. 전라감영 이전 논의는 도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된

1996년부터 시작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2017년부터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사를 철거하고, 동쪽 부지에 선화당 및 관풍각, 연신당, 내아, 내아행랑, 외행랑 등 7개 핵심건물을 복원했다. 폭발사고로 사라진 전라감영이 약 70년 만에 전라도를 통치했던 옛 위용을 되찾은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규모가 최소화됐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시는 전라감영 서쪽 부지 등에 대한 2단계 복원을 검토 중이며, 활용방안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복원된 전라감영은 당초 기념식을 기점으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개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로,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조선의 분향이자, 전라도의 대표도시"라며 "전라감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전라감영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글귀 (국가군제 개고호남) 약속호

남 시무국가'를 새긴 기념비는 전라도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한층 드높일 것"이라며 "전라감영 복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전북 자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며, 조선시대 전라감영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라감영이 복원되는 뜻깊은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라감영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주시에 옛 도심에 자리잡은 전라감영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청사 이전부터 약 20년 동안 진행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는 건축, 도시재생, 콘텐츠 분야 전문가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복원의 방향을 설정해 왔다"며 "복원된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기자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홍보전

조직위, SNS 오픈 이벤트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2022년 6월에 개최하는 대회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대회 불조성에 나섰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공식 SNS 오픈을 기념,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마스터스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참여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APMG2022),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apmg2022),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apmg2022)를 통해 참여 가능하고 참여 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26일에 할 예정이다.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면 국가, 성별, 스포츠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회에는 전세계 70개국, 1만 3,000여명의 생활 체육인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선수단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동반인을 더하면 총 3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도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스터스대회는 경기장 신축 없이 무주군에 있는 국립태권도원을 비롯해 도내 1,143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상 기자

道, 신남방 시장 개척 본격

해외 홈쇼핑·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가동

전북도는 신남방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인도 TV홈쇼핑 방송과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앞서 지난 5월 인도 TV홈쇼핑 MD(상품기획자)와 현지 바이어를 통해 수출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9개사 제품을 선정했다.
또한 마케팅을 진행할 홈쇼핑 방영권을 확보했으며 8월부터 홈쇼핑 방송을 위한 홍보영상과 SNS 마케팅을 위한 인플루언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도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외 홈쇼핑 방송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판로개척에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9~11월까지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도내 30개사, 해외바이어 24개사 규모로 2

회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을 수출기업 10개사에게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페이스북 등 최신 뉴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해 바이어 및 해외 소비자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 동영상,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팅 콘텐츠, 웹드라마·다큐 형식의 브랜드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은 비대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창출하게 되며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신규 판매 플랫폼 진출(아마존, 쿠팡 등)을 타진하게 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마케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을 다방면으로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글날 연휴로 12일까지 신문 쉽니다.



IMSIL-GUN 임실군 추이 전주매일 창간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